(750)

조 선

주체108
(2019) 1

새해를 축하합니다

차　례

표지: 노을비낀 백두산천지　　사진 공유일

화보 《조선》은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로 발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신의주시건설총계획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11월 평안북도안의 당, 행정 및 설계기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신의주시건설총계획을 검토하시며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신의주시건설과 관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집행정형을 료해하시고 신의주시건설총계획도와 신의주시도시건설전망모형사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면서 신의주시를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다 훌륭히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신의주시 중심광장에 정중히 모셔져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축으로 남신의주지구까지 도시중심축을 종심깊게 구성하고 그 주변에 고층살림집들과 도급, 시급공공건물들을 립체감이 나게 배치하며 기본도시중심축과 도시기본도로, 압록강강안을 따라 고층, 초고층주택구역들을 조형예술적으로 훌륭하게 배치하면서 주택구역안에 공원들도 많이 꾸려 신의주시를 공원속의 도시로 건설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신의주시를 국경관문도시답게 잘 꾸리기 위하여서는 현대적이면서도 민족적색채가 짙은 웅장한 건축물들을 많이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극장, 영화관, 체육촌, 빙상장, 과학기술도서관을 비롯한 공공건물들과 호텔, 백화점과 같은 봉사시설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시대적미감이 나게 훌륭하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현재의 산업지구들을 깨끗이 정리하는것과 함께 신의주시의 철도역과 의주비행장을 현대적으로 개건할데 대한 방향도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도시록화를 비롯한 문화적인 환경조성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시기본도로주변과 산업지역 변두리에 록지띠를 조성하여 주민 1인당 록지면적을 50㎡정도로 보장하며 시립공원과 식물원, 유원지를 지방의 특성에 맞게 아담하면서도 독특하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도시건설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인민들의 생활에 사소한 불편도 없도록 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전력생산을 늘이고 자연에네르기를 최대한 리용하여 도시전력공급망체계를 완비하고 난방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며 상수보장을 국제적기준대로 할수 있게 하고 주민지구와 산업기업소들이 밀집된 조건에 맞게 산업페수, 오수정화체계를 잘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에 커다란 고무를 받은 일군들은 국경도시 신의주시를 훌륭하게 꾸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을 하루빨리 실현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글 김선경

수산부문의 전진비약을 힘있게 선도해주시며

동해지구의 수산사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7(2018)년 11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11월 동해지구의 수산사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5월27일수산사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몸소 고기배에 오르시여 만선하고 귀항한 선장과 어로공들을 축하해주시고 배전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그들과 담화하시면서 물고기잡이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조선인민군 8월25일수산사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사업소가 황금해력사창조의 고향, 《단풍》호고기배들의 고향답게 전국의 제일 앞장에서 실적을 올리며 물고기대풍을 마련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축하하시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찾으시고 사업소에서 물고기들을 고기배 척당 1 000t이상 잡아 년간 계획을 초과수행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군대가 앞으로도 황금해력사창조의 선구자들답게 당의 수산정책을 옹호관철하는데서 계속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글 박병훈

신발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12월초 원산구두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시며 최근 《전국신발전시회》에서 원산구두공장이 1등을 하고 공장에서 출품한 《매봉산》신발에 대한 호평이 대단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뻤다고 하시면서 지방의 크지 않은 공장이 온 나라에 소문난 구두공장으로, 나라의 신발공업을 주도하는 맏아들공장으로 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에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 제품견본실에 이어 생산현장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갑피직장에서 나어린 재봉공이 조종프로그람이 설치된 자동재봉기를 다루는 모습을 보시고 기특해하시면서 기술자, 기능공들의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하여 재봉작업에서 콤퓨터화를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신발창풀칠공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정형을 료해하시고 신발생산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사업을 완전무결하게 실현할데 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나날이 높아가는 인민들의 생활상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신발생산에서 형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색이 고상하면서도 우리 사람들의 미감에 맞으며 가볍고 견고함을 보장하는데 중심을 두고 그 질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을 계속 틀어쥐고 내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늘 공장을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공장에 불쑥 예고없이 찾아왔는데 신발풍년을 보았다고, 공장에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 질좋은 신발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오는 모습을 보니 정말 흡족하고 기분이 좋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원산구두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인민들의 호평과 인정을 받는 구두를 더 많이, 더 맵시있게 만들어냄으로써 당정책관철의 앞장에서 선봉적역할을 다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공장종업원들과 생산현장들에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글 강수정

원산구두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7(2018)년 12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기발을 수여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5(2016)년 8월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4(2015)년 5월

조선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주시여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갈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는 청년전위들

청년들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믿음을 지니시고 청년중시정치의 새 경지를 펼쳐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손길아래 오늘 조선청년운동은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김 정 은
2012 1. 26》

이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당시) 중앙위원회의 일군들이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그들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친필이다.

주체104(2015)년 4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청년동맹은 조직성과 규률성, 전투력이 그 어느 집단보다 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청년들이 강해야 당과 군대가 강해지고 조국이 강대해진다고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온 사회에 청년중시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여 청년들, 청년운동에 대한 국가적관심을 높이고 국가적투자를 강화하여 청년들에게 필요한 모든것을 원만히 해결해주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청년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절대의 믿음, 세심한 령도는 조선청년들이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들로 더욱 억세게 자라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게 하고있으며 온 나라가 청춘의 생기와 활력으로 들끓게 하고있다.

조선혁명의 성지 백두대지에 일떠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청년중시정치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는 것과 함께 그이의 사랑과 믿음에 기어이 보답하고야마는 조선청년들의 억센 기상을 잘 보여주고있다.

조선청년들은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과 도덕풍모, 웅대한 포부와 창조력을 지니고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청년영웅신화들을 새롭게 창조하며 조국번영의 진군길을 계속 앞장에서 열어가고있다.

글 최광호

조선청년들은 조국을 빛내이는 보람찬 투쟁에서 청춘의 열정과 지혜를 다 바쳐가고있다.

조선민족의 넋과 기상이 어려있는 조종의 산 백두산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4(2015)년 4월

백두령봉의 웅장한 자태

백두산의 절묘한 기암절벽들

백두산을 감도는 안개

봄을 맞은 백두산천지

백두산의 특산으로 널리 알려진 만병초와 천지산천어를 비롯한 여러가지 동식물들이 자라고있다.

사진 홍훈, 변찬우, 송대혁

날을 따라 변모되는 평양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4(2015)년 10월

에네르기절약형, 록색형거리로 일떠선 려명거리의 일부

창전거리에 독특한 형식으로 일떠선 인민극장

보통강기슭에 고전미와 현대미가 결합된 생울림극장인 삼지연관현악단 극장이 일떠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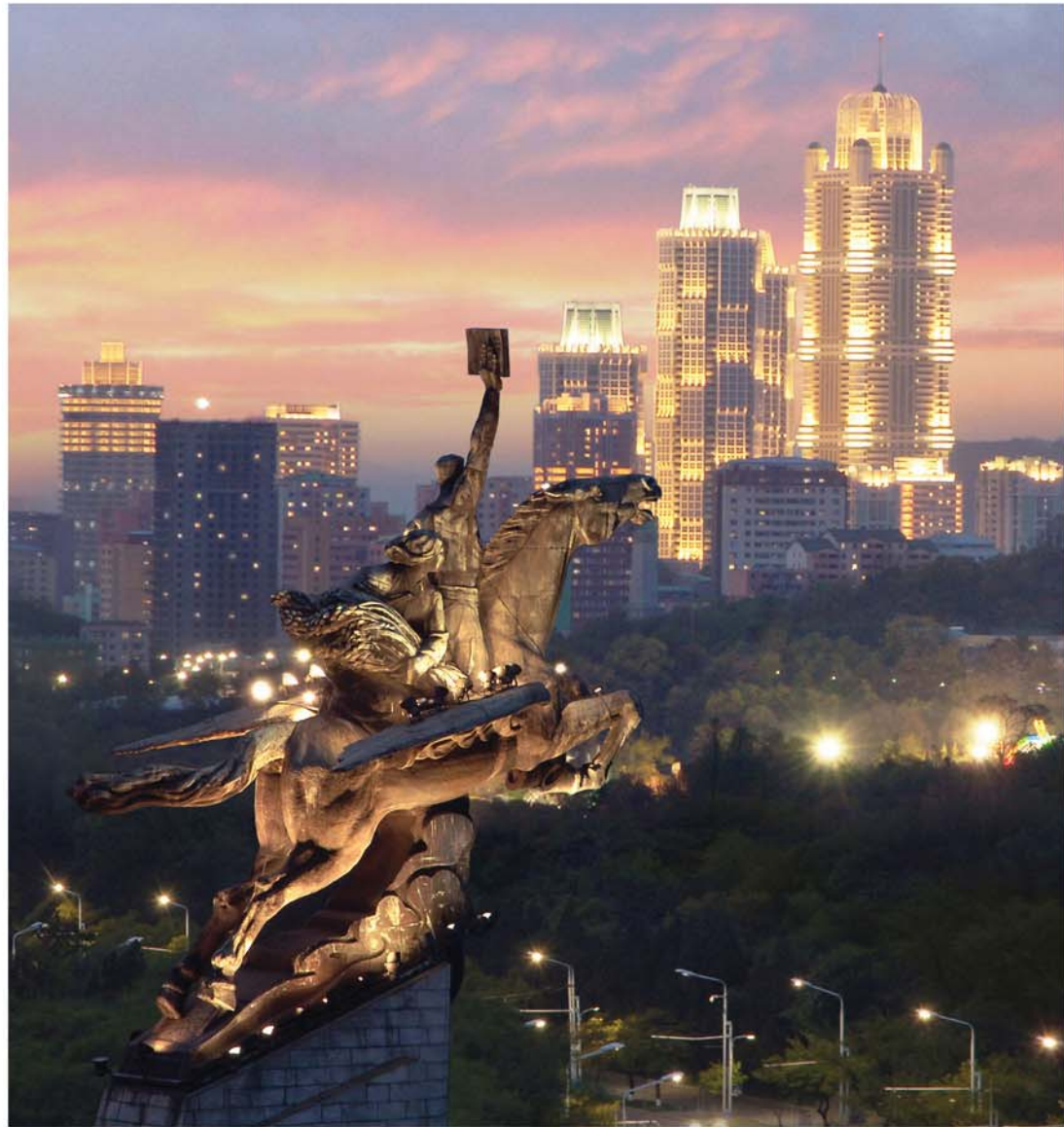
평양의 이르는 곳마다에는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하여 독특한 건축미를 가진 건축물들이 수많이 일떠섰다.

잠들줄 모르는 평양의 밤

사진 홍광남, 변찬우, 공유일, 김성철, 송대혁, 김혁철

철강재생산에서 주체화를 실현한 황철

굴지의 금속공업기지인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증산의 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이곳의 로동계급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을 성대히 경축한 지난해에 콕스에 의존하는 철생산방법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제철, 제강기술을 완성하여 철강재생산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산소분리기2직장의 기술자, 로동자들은 생산의 선행공정을 맡은 책임감을 안고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설비관리를 짜고들어 언제나 만가동을 보장하고있다.

산소열법용광로의 용해공들은 선진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공정간 련계를 빈틈없이 맞물려 차지당 용해시간을 더욱 단축하고있다.

강철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서로의 지혜를 합쳐가며 생산을 늘이고 쇠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리고있다.

새해의 첫시작부터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 더 많은 철강재를 보내주려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열의속에 철의 도시 송림시는 날이 갈수록 들끓고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김선경

련합기업소에서는 산소전로와 산소분리기 설치를 비롯한 대상공사가 완공되여 주체철 생산장성의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새형의 무궤도전차가 생산된다

무궤도전차의 조립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종합지휘한다.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력갱생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생산을 다그치고 제품의 기술적특성을 갱신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지난해 공장의 기술집단은 설계단위와의 긴밀한 련계속에 조종특성이 좋은 새 전동기를 설치하여 종전보다 견인력을 1. 2배로 높이고 2중전원체계를 도입한 새형의 무궤도전차설계를 내놓았다.

전차조립직장을 비롯한 모든 직장들에서 생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지혜로 해결하려는 열의가 높아지는 속에 천정골조의 합리적인 구조방식과 내부곡면형성방법 등 어려운 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하여 불과 수십일만에 성능이 훨씬 높을뿐아니라 모든 의장품들의 질과 문화성이 현저히 개선된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만들어내였다.

평양무궤도전차공장에서 만든 새형의 무궤도전차들은 지금 시안의 려객운수로선들을 달리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김선경

학교의 교수교양사업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이룩되고있다.

학교에서는 과학 및 교육연구기관들과의 련계밑에 현대적인 교육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최근에는 콤퓨터결합장치에 의한 실험실습교육의 정보화를 훌륭하게 완성하여 교수사업의 질을 더욱 높이였다.

교수합평회, 강좌별시범출연 등 교원들의 강의능력과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는 속에 많은 학교교원들이 10월8일모범교수자가 되였다.

하기에 이 학교 학생들의 실력도 전국적으로 손꼽히고있다.

학교에서는 국제수학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받은 학생들과 7. 15최우등상수상자들이 수많이 배출되였다.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적인 학과경연들에서 유서깊은 학교의 영예를 높이 떨치고있는 이곳 학생들은 지난해에 진행된 전국제1중학교학생들의 외국어회화경연을 비롯한 여러 학과경연들에서도 우승을 쟁취하였다.

사진 리진혁, 신충일 글 김선경

창 덕 학 교

평양시 만경대구역 칠골1동에 창덕학교가 자리잡고있다.

이 학교는 조선에 대한 일제의 군사적강점초시기였던 1907년에 위대한 수령님의 외할아버님이신 강돈욱선생님을 비롯한 칠골일대의 선각자들이 애국문화계몽운동으로 나라의 독립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세운 사립학교였다.

학교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12(1923)년 4월부터 주체14(1925)년 1월까지 다니시면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큰 뜻을 키우신 불멸의 사적이 깃들어있다.

조선이 해방된 후인 주체34(1945)년 10월 28일 학교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창덕학교시절은 나의 일생에서 의의깊은 시기였으며 그때 키운 애국의 넋은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 나에게 크나큰 신심과 불굴의 투지를 안겨주었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는 줄기찬 교육활동과 더불어 교육조건과 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향상시켜온 학교는 오늘 고급중학교부류에서 전국적인 본보기학교의 하나로 더욱 이름떨치고있다.

교육환경이 일신된 교정에서

누구나 즐겨찾는 곳

평양의 대성산기슭에 중앙동물원과 나란히 자리잡고있는 자연박물관에 동물생태홀과 어린이학습 및 체험실이 새로 꾸려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더 큰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동굴구역과 해양생태체험구역, 륙지생태구역으로 구분되여있는 동물생태홀에는 근 150종에 260여점에 달하는 박제품 및 동물모형들과 수많은 식물표본들이 있다.

동굴구역을 지나 나지는 해양생태체험구역에서 사람들은 마치 잠수함을 타고 바다속을 항행하는 탐험가가 된듯 한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일명 싸반나라고도 불리우는 열대산림초원을 보여주고있는 륙지생태구역에는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오스트랄리아, 아시아의 일부 지역들에서 사는 동식물들이 대륙별로 나뉘여 생동하게 형상되여있다.

어린이학습 및 체험실은 1, 2로 되여있다.

어린이학습 및 체험실1에서는 학생들이 담임교원이나 자연박물관의 연구사 또는 해당 부문 전문가들로부터 천문학, 동물학, 식물학 등과 관련한 강의와 질의문답을 받는다.

어린이학습 및 체험실2에서 그들은 화석찾아보기, 동식물알아맞추기 등 여러 체험을 통하여 자연에 대한 지식을 더욱 넓혀간다.

학생들과 참관자들은 학교와 책에서 배운 지식을 실천을 통하여 공고한 지식으로 다져가니 정말 좋다고 한다.

오늘도 자연박물관은 사람들에게 더 큰 랑만과 정서를 안겨주며 어서 오라 반기고있다.

사진 홍태웅 글 강수정

다양한 직관물, 식물표본들과 여러가지 유희기재 등을 리용하여 직관 및 실물교육을 진행한다.

참매연구사들

몸집은 그리 크지 않지만 날카로운 부리와 억센 발톱, 균형잡힌 몸매와 밝은 눈을 가지고있는 참매는 오랜 옛날부터 새를 사랑하여온 조선인민들의 생활과 깊은 인연을 맺어온 새로서 주체97(2008)년에 국조로 선정되였다.

국가과학원 동물학연구소에는 이러한 참매의 생활습성과 생태적특성을 고찰하고 보호증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진행하여오고 있는 연구집단이 있다.

조류학계의 권위자의 한사람인 박사 김경준을 실장으로 하는 동물생태학연구실의 연구사들이다.

조선에 분포되여있는 동물들의 종구성과 분포 및 생태학적특성을 조사하고 동물자원을 늘이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는 그들은 지난 기간 수많은 동물들에 대한 생태학적조사들을 진행하고 유용동물들을 보호증식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곳 연구사들은 다른 부문의 과학자들처럼 연구실이나 실험실 등에서가 아니라 야외에서 그것도 온 나라 각지를 다니면서 자기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참매에 대한 연구사업도 마찬가지였다.

당시는 철새들의 이행경로를 밝혀내기 위한 사업이 한창 벌어지던 때여서 조선에서 참매가 서식하고있는 지역들과 개체수, 특성 등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를 동시에 진행한다는것은 그들에게 너무 아름찬 것이였다.

더우기 참매와 관련한 문헌자료들도 많지 못하였다.

그러나 김경준실장을 비롯한 연구사들은 인민들에게 국조 참매와 관련한 지식을 하루빨리 안겨줄 열망을 안고 참매연구의 초행길에로 주저없이 나섰다.

참매의 서식지를 찾아 울창한 수림과 길아닌 길들을 헤치며 수많은 산발들을 오르내렸고 새를 감시하느라고 깊은 산중에서 새날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그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참매는 조선의 백두산일대를 비롯한 고산지대들에서 4월말-5월초에 번식하고 겨울에는 중부지대들에까지 퍼져 사는 사철새이며 키나무가지우에 둥지를 만든다는것 등 참매의 서식 및 보호증식과 관련한 연구자료들이 사진 및 록화물들과 함께 하나둘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노력에 의하여 주체104(2015)년 5월 함경남도 덕성군에 참매보호구가 새롭게 설정되였다.

오늘도 그들은 조국의 자원을 늘여간다는 긍지를 안고 온 나라 방방곡곡을 계속 쉬임없이 찾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김선경

적극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참매의 전국적인 분포상태와 생태학적특징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참매를 찾아서

새로운 남새품종을 육종하고 남새생산을 과학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온실남새생산의 과학화를 위하여

주체89(2000)년 7월에 창립된 농업연구원 평양남새과학연구소는 오늘 나라의 남새과학연구의 중심기지로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

연구소는 영양가가 높은 새 남새품종들을 육종하고 박막온실과 수경온실들에서의 다수확재배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시험생산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다.

육종연구실과 재배연구실들, 생물학연구실, 정보연구실을 비롯하여 연구소에 꾸려진 10여개의 연구기지들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등을 졸업한 과학기술인재들이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가고있다.

지난 기간 연구소에서는 수십여가지의 남새품종들을 육종하고 수십건의 온실남새재배기술을 확립하였다. 최근년간에만도 이곳 연구사들은 잎남새와 열매남새, 뿌리남새를 비롯한 다양한 남새품종연구에 힘을 넣어 온실원형가지, 온실반원형가지, 온실도마도, 푸른도마도 등 새로운 남새품종들을 육종하였다.

그중에는 이전에 관상용으로 리용되거나 가정들에서 그릇닦개로 쓰이던 수세미오이를 식용남새로 전환하는 성과도 있다.

그들은 수경온실에서의 영양액조종 및 관수조절을 비롯한 많은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고 박막온실에서의 파종과 모기르기, 포기관리, 병해충구제, 토양소독, 방울식관수방법들을 표준화하여 전국에 일반화하였다.

그리고 남새작물배치방법도 새롭게 연구완성하여 한해에 5모작까지 하여 최대수확을 거둘수 있게 하였다.

연구사들은 새 품종육종과 재배를 위한 사업에 생물공학기술과 정보기술을 비롯한 첨단기술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푸초, 붉은통양배추, 줄도마도, 주름도마도, 줄기부루, 경채, 분홍시금치, 유맥채 등의 품종들을 조선의 기후풍토에 순화시켜 재배할수 있게 하였다.

연구소에서 이룩되고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은 전국의 온실남새생산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는데 적극 이바지되고있다.

사진 홍광남 글 박병훈

장애를 딛고 올림픽에로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제3차 아시아장애자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우승을 다투는 선수들속에는 조선선수들도 있었다.

탁구와 수영, 맹인륙상경기에 출전한 그들은 조선장애자체육협회에 망라되여있는 선수들이다.

두팔이 없는 김영록과 선천성내번족장애자인 박금진은 탁구남자단식경기들에 출전하여 다양한 쳐넣기와 능란한 기술수법들로 관중들의 눈길을 모았다.

지상에서는 삼륜차를 타고 움직여야 하는 심승혁과 정국성, 김영현(녀자)은 평영과 자유영 100m경기들에 참가하여 자신들의 재능을 한껏 발휘하면서 훌륭한 경기모습을 펼치였다.

시력장애자들인 고정의와 신혁도 포환던지기와 원반던지기, 맹인륙상 5 000m경기들에 참가하여 우수한 경기성적들을 기록하였다.

이들이 높은 육체적준비와 완강한 투지를 필요로 하는 체육의 세계에 들어서 국제경기들에 참가하기까지는 조선장애자체육협회의 많은 노력이 깃들어있다.

처음 체육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삶에 대한 락관과 희망보다 위축감과 괴로움이 더 많았다는 장애자체육선수들이다.

조선장애자체육협회는 체육활동을 꿈으로 여기던 그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주며 새 생활창조에로 이끌었다.

협회의 일군들과 감독들은 그들을 찾아다니며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자신들의 삶을 제힘으로 개척하도록 고무격려해주었다.

탁구를 비롯한 여러 체육경기들을 활발히 조직하는것과 함께 수영, 활쏘기, 스키 등 종목들도 더욱 확대해갔다.

그들의 적극적인 노력속에 수많은 장애자들이 협회에 망라되여 삶의 희망을 찾았다.

오늘 조선에서는 수많은 장애자체육경기들이 진행되고있다.

그리고 제14차 국제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한 조선의 장애자체육선수들은 그후 아시아장애자경기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경기들에도 계속 출전하여 좋은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조선장애자체육협회는 이들의 꿈과 희망을 계속 꽃피워주고있다.

사진, 글 홍수경

여러 국제경기들에 참가한 장애자체육선수들

국립교향악단

국립교향악단에서 배출된 이름있는 연주가, 지휘자들

바이올린연주가
인민배우 백고산

지휘자 인민예술가
허재복

지휘자 인민예술가
김병화

국립교향악단은 주체35(1946)년 8월 8일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첫 연주로 창립을 선포한 관록있는 예술단체이다.

창립당시 1관편성이였던 교향악단은 1970년대초에 3관편성관현악단으로 발전하였다.

지나온 년대기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주제로 한 교향곡 《피바다》, 관현악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아리랑》, 교향련곡 《당에 드리는 노래》 등 수많은 작품들로 음악예술의 세계를 아름답고 풍부하게 하여온 악단은 최근년간에도 관현악 《바다만풍가》, 《철령아래 사과바다》, 바이올린협주곡 《고백》, 교향곡 《내 나라 제일로 좋아》, 피아노협주곡 《백두산의 눈보라》 등 훌륭한 음악작품들로 자기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진 민요와 명곡을 소재로 하여 선률위주의 교향악전개수법이 적용된 교향악작품들을 창작하며 민족악기와 양악기를 배합하여 연주하는것은 국립교향악단의 창작연주활동의 기본특징이다.

음색이 맑고 청아하며 부드러운 죽관악기들 그리고 장새납, 꽹과리 등의 민족악기를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양악기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리용복종시키는 배합관현악은 바로 이 교향악단에서 창조된것이다.

그 편성과 음색, 표현력에 있어서 종래의 관현악의 어떤 개념으로도 측정할수 없는 독창적인 관현악인 배합관현악의 신비한 울림은 백수십여명에 달하는 연주집단에 의해서 창조되고있는데 그들중에는 2. 16예술상개인경연과 여러 국제콩클들에서 입선한 우수한 연주가들도 많다.

지휘자 인민예술가 허재복, 바이올린연주가 인민배우 백고산을 비롯한 훌륭한 음악가들이 여기에 망라되여있었다.

섬세하고 세련된 연주기법과 높은 형상력을 갖추고있는 이 연주집단은 비단 조선의 교향악작품들만이 아니라 모짜르트, 베토벤 등의 고전주의작품으로부터 챠이꼽스끼와 쇼스따꼬비츠, 와그너와 말러 등 랑만파시기와 현대의 음악가들의 작품들도 완벽하게 연주형상하고있다.

나라의 예술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두차례에 걸쳐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은 국립교향악단은 모란봉극장에 자리잡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최광호

살림집뜨락에 심은 감나무들은 농장원들의 생활에 보탬을 주고있다.

감나무마을

샘이 솟아나는 3개의 마을이 합쳐져 생겨났다고 하여 그 이름이 유래된 강원도 안변군 천삼리는 산기슭에 규모있게 들어앉은 농촌문화주택들과 공공건물들이 주변의 전야와 어울려 한폭의 그림같이 안겨오는 아름다운 고장이다.

사시절 그러하지만 특히 오곡백과 무르익는 가을이면 천삼리의 풍치는 산지들은 물론 매 집들마다 황금빛으로 단장되여 더욱 장관을 이룬다.

기후가 온화하고 바다가에 위치한것으로 하여 감나무재배가 매우 적합한 안변군에서도 특히 천삼리는 감고장으로 전국에 이름났다.

이곳 리에서는 어느 농장원세대를 막론하고 감나무가꾸기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있으며 살림집뜨락마다 수십그루씩의 감나무들을 심고 관리하고있다

일군들은 물론 평범한 농장원일지라도 전문가에 못지 않은 과수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있는것이 천삼리사람들의 남다른 특징이다.

리에는 지난 시기 주변의 야산들을 개간하여 만든 수백정보의 감나무밭이 펼쳐져있다.

해마다 이곳 사람들은 감나무밭들에 대한 비배관리에 깊은 관심을 돌려 병해충을 비롯한 여러가지 원인들에 의한 수확의 감소를 방지하고 높은 작황을 이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바쳐가고있다.

그와 함께 생산성과 맛이 좋은 새로운 품종들을 적극 심고 현대과수농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모든 감나무밭들을 언제나 청춘과원으로 가꾸어가고있다.

하여 모든 감나무마다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진 가을이면 리의 제일가는 자랑인 감풍경이 펼쳐지는것이다.

리에서는 해마다 수확하는 감들을 저장하거나 여러가지 가공품들을 만들어 협동농장과 세대들의 수입을 늘이고있다

세대마다 오래전부터 감을 가지고 곶감과 감술, 감초, 수정과 등 여러가지 식품들을 만들어 식생활을 윤택하게 하여오고있다.

수확철인 10월중순이 오면 집집마다 온 가족이 모여앉아 곶감을 만드는것도 천삼리의 이채로운 모습의 하나이다.

껍질을 벗겨 꼬챙이에 꿰여 말린 곶감은 그 대부분이 당분으로서 형태와 맛이 독특하고 영양가가 높아 조선인민이 즐겨하는 식품이다.

천삼리의 가을풍경은 찾아오는 사람들모두에게 풍만하고 그윽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며 깊은 여운을 남기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박병훈

농장작업반들에 꾸려놓은 야외곶감건조장

민속놀이로 즐거운 하루

사진 조선중앙통신

낸곳 : © 조선화보사 2019 주소 :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인쇄소 : 외국문출판사 인쇄공장
ISSN 1727 - 9224

편집 김정철 13606-1881167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 ://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 : flph@star-co.net.kp